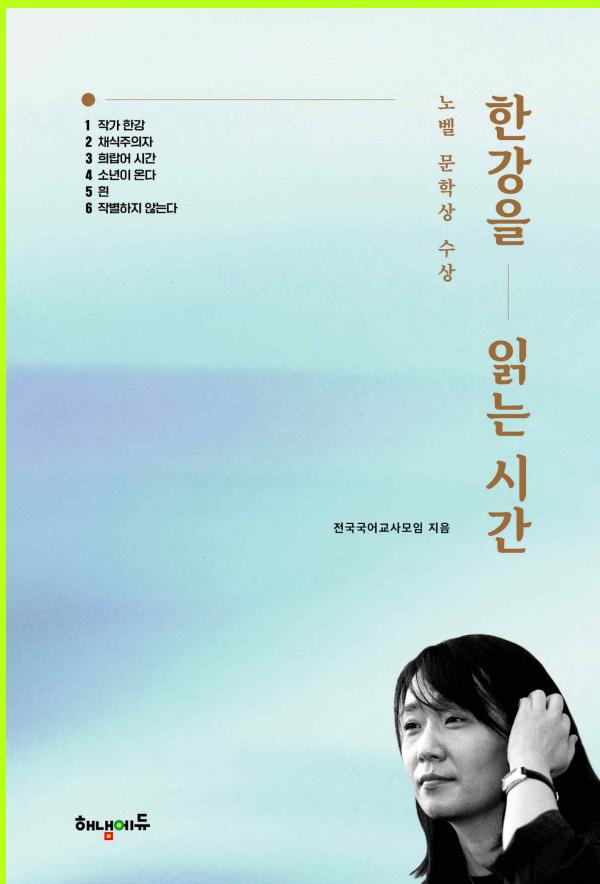


# 한강을 읽는 시간\_중학교 국어 수업지도안



해냄에듀 홈페이지([www.hnedu.co.kr](http://www.hnedu.co.kr))에 오시면 중학교 국어 과목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I . 수업 개요

▷ **개설 취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으며 인문학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 성취 기준

[9국05-03]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9국05-05]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5-08]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다른 해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해석을 평가한다.

[9국05-09]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 ▷ 성취 기준 이해

-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된 다양한 세계를 접하고, 작품 속 인물들의 생각과 행위를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간접 경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를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관한 배경지식을 넓혀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작품 속 인물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타자를 이해하는 능력은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적 연대를 위한 핵심적 요인이다.
- 작품을 잘못 해석하는 오독을 범하지 않으려면 작품 안과 밖의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비교하면서 자기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차시	학습 목표	활동	읽을거리	비고
1~2차시	한강 작가 알기	작품 읽기: 질문지 활용	『한강을 읽는 시간』 1장	개인 활동
3~5차시	작품 전문 읽고 정리하기 1	작품 읽기: 독서 일지 활용	『소년이 온다』	개인 활동
6차시	배경지식 쌓기	작품 배경 이해하기: 질문지 활용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누리집	개인 활동
7~9차시	작품 전문 읽고 정리하기 2	작품 읽기: 독서 일지 활용	『소년이 온다』	개인 활동
10~12 차시	작품 전문 읽고 정리하기 2	작품 읽기: 독서 일지 활용	『소년이 온다』	개인 활동
13~16 차시	작품 감상 공유하기	작품 읽기: 질문지 활용	『한강을 읽는 시간』 4장	개인 활동 + 모둠 활동 + 전체 활동

## ▷ 차시 계획(1학기 16차시)

▷ 차시별 준비 도서와 준비물

차시	준비 도서
1~2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3~5차시	『소년이 온다』(한강■창비)■2024)
6차시	태블릿PC 혹은 수업용 패드
7~12차시	『소년이 온다』(한강■창비)■2024)
13~16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 II. 수업 활동

### 1. 한강 작가 알기(1~2차시)

#### 1) 『한강을 읽는 시간』 1장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1차시)

작품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중심 내용은 책에 그은 밑줄 부분을 다시 읽고 그것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더한 후 간략하게 정리하면 된다.

꼭지	중심 내용
노벨문학상? 노벨문학상!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가가 받는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았다. 이로써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에서 수신자에서 발신자의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
한강의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벨 위원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한강의 소설을 읽어야 한다. 한강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깊은 감정과 통찰을 끌어낸다. 우리는 한강의 소설을 읽으며 소설 속 인물이 바라보는 빛과 진실의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한강의 소설은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은 인간성을 잃지 않으며 몸부림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한강의 소설 전반에 나타난다.
회복은 상처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한다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것은 아픔을 덮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아픔이 연유하는지를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한강은 이 아픔을 묘사하여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독자가 품게 한다.
한강 작품의 모티프, 꿈	꿈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폭로한다. 한강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그의 꿈을 통하여 자기 내면을 드러낸다.
한강 작품 속의 이탈릭체(기울임글꼴)	한강은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 이탤릭체를 사용하였다. 소설에서 이탤릭체가 사용되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강의 소설에는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작가와 주인공은 같지 않지만, 등장인물에는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한강의 작품 곳곳에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작가의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다양한 경험이 작품이 들어 있으며 어떤 작품에는 그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2) 『한강을 읽는 시간』 1장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인상적인 부분 정리하기(2차시)  
작품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인상적인 부분을 정리해 본다.

꼭지	새롭게 알게 된 것(인상적인 부분)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예시)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 작가도 있었다. 한국 문학이 수신자에서 발신자로 전환했다.
한강의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	한강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깊은 감정과 통찰을 끌어낸다.
한강의 소설은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연약함이다.
회복은 상처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한다	문학이 폭력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냈으로써 폭력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드러내어 결과적으로 폭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끔 한다.
한강 작품의 모티프, 꿈	꿈이란 건 무서운 거야.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폭로하니까.
한강 작품 속의 이탈릭체(기울임글꼴)	쓰다가 쓰다가 어떤 감정의 밀도가 차오르면 정체로는 그걸 담을 수가 없어서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쓰게 되고
한강의 소설에는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한강의 작품 속에는 한강의 삶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하다.

## 2. 『소년이 온다』 전문 읽기 1(3~5차시)

### 1) 1장과 2장 읽기(3~4차시)

▷ 다음 독서 일지에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소설 제목	소년이 온다	글쓴이	한강
읽은 날짜	202 년 월 일	쪽수	쪽 ~ 쪽
읽은 내용 요약하기			
인상적인 부분이나 느낀 점			

### 2) 1장과 2장의 중심 내용과 궁금한 점 찾기(5차시)

▷ 1장과 2장의 중심 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장	중심 인물	시기	서술자 (시점)	중심 내용	궁금한 점
1	동호	1980 년 5 월	전 지 적 작가	'너'(동호)는 정대와 함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정미를 찾으러 나선 시위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정대를 두고 몸을 피한다. 그리고는 친구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정대의 시신을 찾으러 도청 민원봉사실에 갔다가 은숙, 선주, 진수와 함께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밟게 된다. 계엄군이 들어오기 전날 '너'는 함께 집에 가자고 찾아온 어머니를 안심시켜 들려보낸다. 그리고 '너'는 정대를 두고 떠난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자책하며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예시) 왜 2인칭으로 서술하였을까? 왜 소년의 시선으로 서술하였을까? 왜 정체가 아닌 이탈릭체로 서술하였을까?
2	정대	1980 년 5 월	1 인 칭 주인공	'나'(정대)는 동호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이 쏜 총에 목숨을 잃는다. '나'의 시신은 짐짝처럼 다른 시신들과 포개어진 채 시체 더미가 된다. '나'는 다른 혼들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끝내 교감할 방법을 찾지 못하며 '나'의 시신이 부패해 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나'와 누나를 죽인 그들을 생각한다. 급기야 군인들은 그 시체 더미에 불을 붙인다. 동호에게로 가려고 마음먹은 그 새벽, '나'는 조명탄과 총신의 불꽃 속에서 동호가 죽었음을 알아차린다.	흔이 말한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 3. 배경지식 쌓기: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누리집(6차시)

- ▷ 아카이브 꼭지의 KBS영상 아카이브 5월의 기록 시청하기
- ▷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작성한다.
- ▷ 소감문에는 새롭게 알게 된 것, 인상적인 것, 깨달은 점 등을 위주로 쓴다.

꼭지	소감문
아카이브 (KBS영상 아카이브 5월의 기록)	

#### 4. 『소년이 온다』 전문 읽기 2(7~9차시)

##### 1) 3장과 4장 읽기(7~8차시)

- ▷ 다음 독서 일지에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소설 제목	소년이 온다	글쓴이	한강
읽은 날짜	202 년 월 일	쪽수	쪽 ~ 쪽
읽은 내용 요약하기			
인상적인 부분이나 느낀 점			

##### 2) 3장과 4장의 중심 내용과 궁금한 점 찾기(9차시)

- ▷ 3장과 4장의 중심 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장	중심 인물	시기	서술자 (시점)	중심 내용	궁금한 점
3	은숙	1985년	전지적 작가	<p>출판사 직원으로 일하는 은숙은 수배 중인 번역자의 소재를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일곱 차례 뺨을 맞는다. 그녀는 그 일곱 개의 뺨을 잊기로 하면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과 도청에 남기로 결심하고 겁에 질려 있던 동호의 마지막 모습과 분수대의 물을 잠가 달라고 도청 민원실에 계속 전화를 하던 그녀 자신의 모습 등 5·18 때의 일들을 생각한다. 은숙은 그때 죽은 이들의 장례가 온전히 치러지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p>	
4	‘나’, 진수	1990년	1인칭 주인공	<p>‘나’(교대 복학생, 33세)는 1980년 5·18 당시 와 체포된 후에 겪은 일을 증언한다. 항쟁의 마지막 밤 소년 동호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진수의 모습,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들의 무장, 그때 빛났던 양심의 힘, 결코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쏴지 않았던 시민군들, 형언할 수 없이 참혹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끝내 인간성을 잃지 않던 어린 영재의 모습, 그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한 진수가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사진 속의 소년 동호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p>	<p>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과거의 아픔은 사람들의 마음에 언제까지 남아있을까?</p>

## 5. 『소년이 온다』 전문 읽기 3(10~12차시)

### 1) 5장, 6장, 에필로그 읽기(10~11차시)

▷ 다음 독서 일지에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소설 제목	소년이 온다	글쓴이	한강
읽은 날짜	202 년 월 일	쪽수	쪽 ~ 쪽
읽은 내용 요약하기			
인상적인 부분이나 느낀 점			

### 2) 5장, 6장, 에필로그의 중심 내용과 궁금한 점 찾기(12차시)

▷ 5장, 6장, 에필로그의 중심 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장	중심 인물	시기	서술자 (시점)	중심 내용	궁금한 점
5	선주	2001년	전지적 작가	'당신'(선주)는 광주의 일을 증언해 달라는 윤의 부탁을 받고, 증언을 녹음할 것인지를 두고 망설인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난 일들을 회상한다. 노조 운동으로 경험한 경찰의 폭력과 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지막지하고 치욕적인 고문을 당한 일, 그 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희언니와의 절연,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정미의 사연, 죽으려고 돌아간 고향 광주에서 동호의 죽음이 담긴 사진을 보고 고통과 분노의 힘으로 살기로 한 일.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당신'의 생각…….	왜 2인칭으로 서술하였을까?
6	동호 어머니	2010년	1인칭 주인공	'나'(동호 어머니)는 환상처럼 잠시 다녀간 동호를 생각한다. 항쟁의 마지막 밤을 앞두고 동호를 찾으려 도청에 갔다가 발걸음을 돌린 것이 평생의 한이다. 살인자, 군인 대통령이 광주에 온다는 말을 듣고부터 '나'는 살인자와 맞서 싸운다. 동호의 억울함을 풀려고 있는 힘을 다한다. 서른 살에 낳은 아들 동호의 성장 과정을 떠올리면 한없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다. '나'의 기억 속 여섯, 일곱 살 된 동호가 '나'의 손을 이끌며 꽃핀 쪽으로 가자고 말한다.	왜 이 장에는 이탈릭체가 없을까?
예필로그	'나'	2013년	1인칭 주인공	'나'는 작가로서 동호의 자취를 더듬는다. 5·18 관련 자료를 읽는 동안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끝내 동호의 이야기를 쓰기로 하고 그의 형에게 허락을 구한다. 그리고 그의 형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의 동생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써 달라는 간곡한 청을 듣는다.	서술자와 작가가 일치하는가?

## 6. 『소년이 온다』 감상 공유하기(13~16차시)

### 1) 질문 만들기(13차시)

- ▷ 작품을 읽으면서 메모한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 ▷ 스스로 답을 추측할 수 있는 것에는 답을 달아 보자.
- ▷ 스스로 답할 수 없는 것은 왜 답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자.

	궁금한 점	스스로 답하기	답하지 못한 이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에필로그			

### 2) 『한강을 읽는 시간』 4장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14차시)

- ▷ 작품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13차시에 만든 질문이 해결되는지 생각해 보자.

꼭지	중심 내용
일곱 개의 시선으로 보는 소년의 이야기	개별 이야기로 보이는 일곱 개의 이야기는 모두 동호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각 이야기는 시점과 초점 화자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변수를 보여 준다.
학살과 저항 -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비상계엄 아래에서 유일하게 저항한 전남대생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상황에서 5·18을 촉발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시민군을 만들게 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평화를 지켰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1988년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도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바로 설 것이다.
‘우리’와 ‘우리 군대’의 애국가와 태극기	1980년대는 국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시대였다. 그런 군인이 시민들을 죽였을 때 소년 동호는 정신적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왜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애국가를 불러 주고, 죽은 그들의 시신을 태극기로 감싸는지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5·18은 인간이 존엄하게 대우 받는 나라를 향한 시민의 열망이 만든 것이다.
소년 동호, 도청에 남다	소년 동호가 도청에 남은 것은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의 결과이다. 그 결단은 세상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는 어린 소년이기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고문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맞서지 않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 즉 내면의 양심에서 그 결단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왜 ‘소년’이며 왜 ‘온다’일까	소년 시절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절이므로 사회의 미래이자 가능성이이다. 그런데 부당한 폭력으로 소년의 앞날이 사라져 버렸다. 결국 소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결국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주’에 지금 이 순간 ‘소년은 오고 있다.’
시점의 변수와 의미 구성	작가는 시점을 변수하고,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 에피소드에 분산해서 배치함으로써 인물들을 더욱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작품을 읽는 내내 독자로 하여금 긴장을 유지하게 한다.
인물들의 개별성과 동질성	한강은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철저히 개인으로 독립하여 다루고 있다. 이념이나 처지나 신분 등에 따라 인물의 성격을 유형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개별화되어서 그 어떤 동질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 모두는 다른 인물들의 사연을 증언하는 존재로 역할을 하면서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으로 큰 동질감을 획득하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 ‘꽃핀 쪽으로’와 이탈릭체	작가는 감정의 밀도가 12 차오르면 이탈릭체로 서술한다고 했다. 그러나 6장은 이탈릭체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구절에 감정의 밀도가 이미 차올라 있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어머니의 이야기 전체를 이탈릭체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모든 문장을 정자체로 썼다.

### 3) 모둠별 질문 만들기(15차시)

- ▷ 13차시에 만든 질문 중 14차시에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모둠원끼리 질문에 의견을 나누어 보자.
- ▷ 모둠에서 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우리 사회에 던져야 할 질문을 만들고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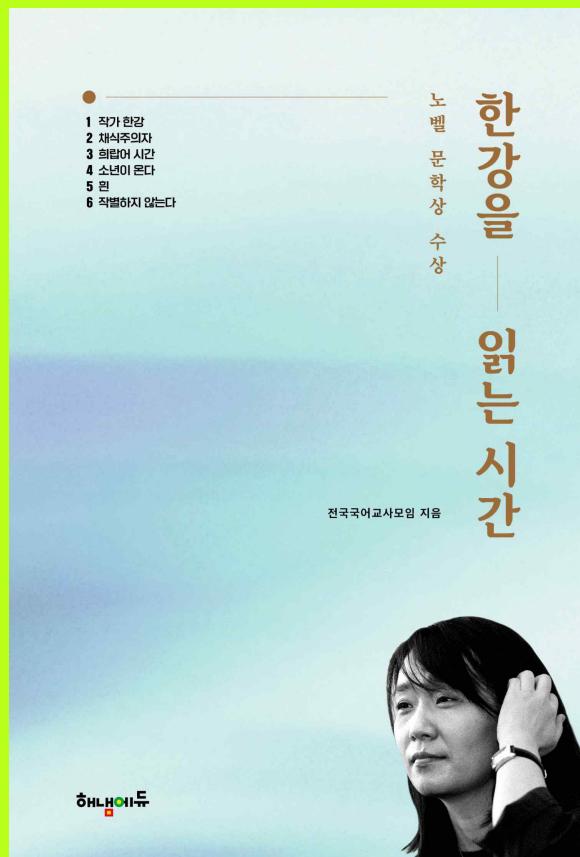
구분	모둠원 1	모둠원 2	모둠원 3	모둠원 4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				

### 4) 질문 만들기(16차시)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발표한다.
- ▷ 전체 학생끼리 질문의 답을 만들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한다.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설명한다.
- ▷ 모둠 대표는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다.
- ▷ 모둠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선정하고 이유를 생각해 본다.
- ▷ 반에서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선정한다.

구분	1 모둠	2 모둠	3 모둠	4 모둠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가장 좋은 질문, 선정 이유				

# 한강을 읽는 시간\_고등 공통국어 수업지도안



해냄에듀 홈페이지([www.hnedu.co.kr](http://www.hnedu.co.kr))에 오시면 고등 공통국어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I. 수업 개요

▷ **개설 취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으며 인문학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 성취 기준

[10공국1-05-03]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10공국2-05-02]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 성취 기준 이해

- 작품을 이해할 때 작품 내적으로는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작품을 이해할 때 작품 외적으로는 다양한 맥락 즉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감상하여야 작품을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창조적인 상상을 통해 작품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해석하되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들으며 자기 감상 내용을 피드백하며 문학 감상을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차시	학습 목표	활동	읽을거리	비고
1차시	한강 작가 알기	작품 읽기: 질문지 활용	한강을 읽는 시간 1장	개인 활동
2~5차시	작품 전문을 읽고 질문 만들기	작품 읽기: 독서 일지, 질문지 활용	소년이 온다	개인 활동
6~8차시	작품 감상 공유하기	작품 읽기: 질문지 활용	한강을 읽는 시간 4장	개인 활동 + 모둠 활동 + 전체 활동
9차시	더 나아가기	작품 배경 이해하기: 질 문지 활용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누리집	개인 활동
10 ~ 13 차시	작품 전문을 읽고 이해하기	작품 읽기: 독서 일지, 질문지 활용	작별하지 않는다	개인 활동
14 ~ 16 차시	작품 감상 공유하기	작품 읽기: 질문지 활용	한강을 읽는 시간 6장	개인 활동 + 모둠 활동 + 전체 활동

▷ 차시 계획(1학기 16차시)

▷ 차시별 준비 도서와 준비물

차시	준비 도서
1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2~6차시	『소년이 온다』(한강■창비■2024)
7~9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10차시	태블릿PC 혹은 수업용 패드
11~14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12~14차시	『작별하지 않는다』(한강■문학동네■2024)
15~16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 II. 수업 활동

### 1. 한강 작가 알기(1차시) : 『한강을 읽는 시간』 1장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

작품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중심 내용은 책에 그은 밑줄 부분만을 다시 읽고 그것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더한 후 간략하게 정리하면 된다.

꼭지	중심 내용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가가 받는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았다. 이로써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에서 수신자에서 발신자의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
한강의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벨 위원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한강의 소설을 읽어야 한다. 한강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깊은 감정과 통찰을 끌어낸다. 우리는 한강의 소설을 읽으며 소설 속 인물이 바라보는 빛과 진실의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한강의 소설은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은 인간성을 잃지 않으며 몸부림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한강의 소설 전반에 나타난다.
회복은 상처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한다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것은 아픔을 덮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아픔이 연유하는지를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한강은 이 아픔을 묘사하여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독자가 품게 한다.
한강 작품의 모티프, 꿈	꿈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폭로한다. 한강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그의 꿈을 통하여 자기 내면을 드러낸다.
한강 작품 속의 이탈릭체(기울임글꼴)	한강은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 이탤릭체를 사용하였다. 소설에서 이탤릭체가 사용되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강의 소설에는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작가와 주인공은 같지 않지만, 등장인물에는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한강의 작품 곳곳에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작가의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다양한 경험이 작품이 들어 있으며 어떤 작품에는 그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2. 『소년이 온다』 전문 읽으며 질문 만들기(2~5차시)

1) 전문 읽기(2~4차시)

작품을 읽으며 각 장의 중심 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장	중심 인물	시기	서술자 (시점)	중심 내용	궁금한 점
1	동호	1980년 5월	전지적 작가	'너'(동호)는 정대와 함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정미를 찾으러 나선 시위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정대를 두고 몸을 피한다. 그리고는 친구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정대의 시신을 찾으러 도청 민원 봉사실에 갔다가 은숙, 선주, 진수와 함께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맡게 된다. 계엄군이 들어오기 전날 '너'는 함께 집에 가자고 찾아온 어머니를 안심시켜 들려보낸다. 그리고 '너'는 정대를 두고 떠난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자책 하며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예시) 왜 2인칭으로 서술하였을까? 왜 소년의 시선으로 서술하였을까? 왜 정체가 아닌 이탈릭 체로 서술하였을까?
2	정대	1980년 5월	1인칭 주인공	'나'(정대)는 동호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이 쏜 총에 목숨을 잃는다. '나'의 시신은 짐짝처럼 다른 시신들과 포개어진 채 시체 더미가 된다. '나'는 다른 혼들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끝내 교감할 방법을 찾지 못하며 '나'의 시신이 부패해 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나'와 누나를 죽인 그들을 생각한다. 급기야 군인들은 그 시체 더미에 불을 붙인다. 동호에게로 가려고 마음먹은 그 새벽, '나'는 조명탄과 총신의 불꽃 속에서 동호가 죽었음을 알아차린다.	혼이 말한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3	은숙	1985년	전지적 작가	출판사 직원으로 일하는 은숙은 수배 중인 번역자의 소재를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일곱 차례 뺨을 맞는다. 그녀는 그 일곱 개의 뺨을 잊기로 하면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과 도청에 남기로 결심하고 겁에 질려 있던 동호의 마지막 모습과 분수대의 물을 잡가 달라고 도청 민원실에 계속 전화를 하던 그녀 자신의 모습 등 5·18 때의 일들을 생각한다. 은숙은 그때 죽은 이들의 장례가 온전히 치러지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4	'나', 진수	1990년	1인칭 주인공	'나'(교대 복학생, 33세)는 1980년 5·18 당시와 체포된 후에 겪은 일을 증언한다. 항쟁의 마지막 밤 소년 동호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진수의 모습,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들의 무장, 그때 빛났던 양심의 힘, 결코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던 시민군들, 형언할 수 없이 참혹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끝내 인간성을 잃지 않던 어린 영재의 모습, 그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한 진수가 죽을 때	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과거의 아픔은 사람들의 마음에 언제 까지 남아있을까?

## 2) 질문 만들기(5차시)

- ▷ 작품을 읽으면서 메모한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 ▷ 스스로 답을 추측할 수 있는 것에는 답을 달아 보자.
- ▷ 스스로 답할 수 없는 것은 왜 답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자.

궁금한 점		스스로 답하기	답하지 못한 이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 3. 『소년이 온다』 감상 공유하기(6~8차시)

1) 『한강을 읽는 시간』 4장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6차시)

- ▷ 작품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5차시에 만든 질문이 해결되는지 생각해 보자.

꼭지	중심 내용
일곱 개의 시선으로 보는 소년의 이야기	개별 이야기로 보이는 일곱 개의 이야기는 모두 동호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각 이야기는 시점과 초점 화자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변수를 보여 준다.
학살과 저항 -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비상계엄 아래에서 유일하게 저항한 전남대생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상황에서 5·18을 촉발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시민군을 만들게 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평화를 지켰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1988년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도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바로 설 것이다.
‘우리’와 ‘우리 군대’의 애국가와 태극기	1980년대는 국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시대였다. 그런 군인이 시민들을 죽였을 때 소년 동호는 정신적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왜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애국가를 불러 주고, 죽은 그들의 시신을 태극기로 감싸는지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5·18은 인간이 존엄하게 대우 받는 나라를 향한 시민의 열망이 만든 것이다.
소년 동호, 도청에 남다	소년 동호가 도청에 남은 것은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의 결과이다. 그 결단은 세상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는 어린 소년이기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고문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맞서지 않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 즉 내면의 양심에서 그 결단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왜 ‘소년’이며 왜 ‘온다’일까	소년 시절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절이므로 사회의 미래이자 가능성이이다. 그런데 부당한 폭력으로 소년의 앞날이 사라져 버렸다. 결국 소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주’에 지금 이 순간 ‘소년은 오고 있다.’
시점의 변수와 의미 구성	작가는 시점을 변수하고,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 에피소드에 분산해서 배치함으로써 인물들을 더욱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작품을 읽는 내내 독자로 하여금 긴장을 유지하게 한다.

## 2) 모둠별 질문 만들기(7차시)

- ▷ 5차시에 만든 질문 중 6차시에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모둠원끼리 질문에 의견을 나누어 보자.
- ▷ 모둠에서 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우리 사회에 던져야 할 질문을 만들고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생각해 보자.

구분	모둠원 1	모둠원 2	모둠원 3	모둠원 4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				

## 3) 질문 만들기(8차시)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발표한다.
- ▷ 전체 학생끼리 질문의 답을 만들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한다.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설명한다.
- ▷ 모둠 대표는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다.
- ▷ 모둠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선정하고 이유를 생각해 본다.
- ▷ 반에서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선정한다.

구분	1 모둠	2 모둠	3 모둠	4 모둠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가장 좋은 질문, 선정 이유				

#### 4) 더 나아가기(9차시)

-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누리집을 방문한다.

▷ 제시된 꼭지를 방문하여 질문지에 기록한다.

꼭지	인상 깊은 내용
5·18민주화 운동이란?	
5·18세계기 록유산	
5·18 더 알아보기	
5·18사적지	
아카이브 (KBS영상 아카이브 5월의 기록)	

4. 『작별하지 않는다』 전문 읽으며 질문 만들기(10~13차시)

1) 전문 읽기(10~12차시)

▷ 작품을 읽으며 중요 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부	장	중요 내용	궁금한 점
1부 새	1. 결정	'나'는 도시의 학살에 관한 책을 낸 후 악몽을 계속 꾸고 있다.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아원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맞고 있는 것 같은 꿈이다. 그런데 이 학살이 이 도시에서만 일어난 것 같지 않다. 이 꿈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여야 한다.	(예시) 학살이 일어난 도시는 어디일까? '나'는 작가와 일치하는가?
	2. 실	'나'(경하)의 꿈을 들은 인선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두 개가 잘린다. 인선은 이 고통 속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하게 된다. 인선은 애써 노력하는 일이 실패한다 해도 의미만은 남을 거라고 믿는, 침착한 사람이다.	삼 주 동안 삼 분에 한 번씩 봉합수술한 자리를 찔리는 고통은 어떠할까?
	3. 폭설	새를 구해달라는 인선의 부탁으로 경하는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도 제주에 온다. 경하는 인선의 가출 경험과 그때 죽을 뻔했으며 인선의 어머니의 꿈 이야기, 죽은 자의 얼굴에는 눈이 놓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선이 말한 인선 어머니의 과거 경험 이야기 등을 회상한다.	왜 '나'에게는 인선의 부탁을 거절할 방법이 없었을까?
	4. 새	경하는 적막한 P읍에 도착하여, 눈이 올 때 인선이 인선 어머니의 어릴 때 경험을 말한 것, 인선이 가출했을 때 인선 어머니가 제주 집에서 인선이 콩죽을 먹으려 한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떠올린다. 경하는 밀도 높은 눈에서 인선의 베트남 활영 영상을 떠올린다. 마침내 경하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세천리 인선의 집으로 간다.	"이상하다. 살아 있는 것과 달았던 감각은. 불에 데였던 것도.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살갗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감각은 어떤 감각일까?
	5. 남은 빛	기억에 의지하여 무릎까지 쌓인 눈과 어둠을 헤치고 인선의 집을 찾아가던 경하는 눈더미 속으로 미끄러진 후 겨우 인선의 목공방에 간다. 경하는 인선의 두 번째 다큐멘터리 주인공인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동상으로 발가락 4개를 잃은 할머니를 떠올린다. 그러나 물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을 떠올리고, 칠십 년 전 죽은 사람들이 맞은 눈, 인선 어머니가 맞은 눈, 인선이 맞은 눈, 베트남의 폭우, 자기 손의 눈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선이 말한 '삼면화'란 무엇일까?
	6. 나무	경하는 죽은 아마를 정성스럽게 땅에 묻는다. 그러곤 경하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선의 아버지에 관한 인선의 인터뷰가 담긴 인선의 다큐멘터리를 떠올린다. 경하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한다.	어떤 고통이 주어졌길래 인선의 아버지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1. 작별하지 않아	기절한 듯 잠들었다가 깨어 <sup>14</sup> -경하 앞에 어제 죽어 땅에 묻힌 아마가 있고, 목공방에서는 인선이 있다. 인선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떠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	인선은 실제일까, 혼일까? 왜 프로젝트 이름은 '작별하지 않는다'?

## 2) 질문 만들기(13차시)

- ▷ 작품을 읽으면서 메모한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 ▷ 스스로 답을 추측할 수 있는 것에는 답을 달아 보자.
- ▷ 스스로 답할 수 없는 것은 왜 답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자.

	궁금한 점	스스로 답하기	답하지 못한 이유
1부			
2부			
3부			

## 5. 『작별하지 않는다』 감상 공유하기(14~16차시)

1) 『한강을 읽는 시간』 6장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14차시)

- ▷ 작품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13차시에 만든 질문이 해결되는지 생각해 보자.

꼭지	중심 내용
소설 속 인물들을 따라가며 작품 읽기	작가의 분신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하’, 경하를 제주로 이끈 ‘인선’ 그리고 인선의 어머니인 ‘정심’, 이렇게 세 여성이 주된 인물로 등장 한다.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면 작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내용까지 한눈에 다가오게 된다.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도	제주 4·3 사건 때 중산간 마을은 95% 이상이 불에 타고 주민들은 집단으로 학살되었으며, 해안 마을의 주민들도 백사장에서 몰살당한다. 생명을 앗아 가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던 끔찍한 시절이었다. 육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학살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기억을 위한 서사의 방식	<p>‘작별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에서 작가의 실천적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p> <p>경하가 제주로 간 이유는 작가가 제주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제주의 아픔은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p> <p>이 작품에서 ‘흔’은 큰 자리를 차지하며 실제와 상상을 넘나들며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이끈다.</p> <p>아카이빙 방식으로 증언하면서 제주어와 표준어로 병치되어 있다.</p> <p>현재에 놓여 있는 인물의 생각이 끊임없이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사건들의 아귀가 맞춰진다.</p>
애도하는 방법	<p>검은 나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은 희생당한 이들을 애도하는 것이다. 검은 통나무를 심는 시기인 11월 중순은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이 선포되던 계절이다.</p> <p>오래도록 기다려 온 사람의 대답, 오래 침묵하고 갇혀 있었던 사람의 대답이 있는 목소리를 이끌어 세상에 말하게끔 하는 것이 인선이 행하는 애도의 방식이다.</p>
기억하는 방법	<p>제주 4·3의 아픈 역사와 희생을 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환지통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기억하여야 한다. 죽어 가고 잊힌 모든 것에 피를 나누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p> <p>파불이를 향한 사랑은 역사와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사랑으로 이어진다. 개별적 사랑이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되살아난다. 추모에 그치지 않고, 찾아 나서 세상에 침묵 대신 기억을 건네는 일. 개인의 아픔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지극한 사랑’이다.</p> <p>콩죽을 쑤어주는 것, 동생에게 피를 나누어 주는 것, 앵무새를 정성스럽게 애도하는 것 모두 정성을 다하는 것이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p> <p>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이 작품은 문학이 증언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기록하여 알리는 일은 기억과 공유의 강력한 방법이다.</p>
가벼우나 가볍지 않은 소재	<p>눈은 현재와 과거를,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p> <p>- 17 -</p> <p>한강 작가는 가장 가벼운 존재를 통해, 가볍지 않은 생명의 가치를 드러낸다.</p>
	제주느 역사적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이권이 가치를 잇깨으느 선이 되

## 2) 모둠별 질문 만들기(15차시)

- ▷ 13차시에 만든 질문 중 14차시에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모둠원끼리 질문에 의견을 나누어 보자.
- ▷ 모둠에서 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우리 사회에 던져야 할 질문을 만들고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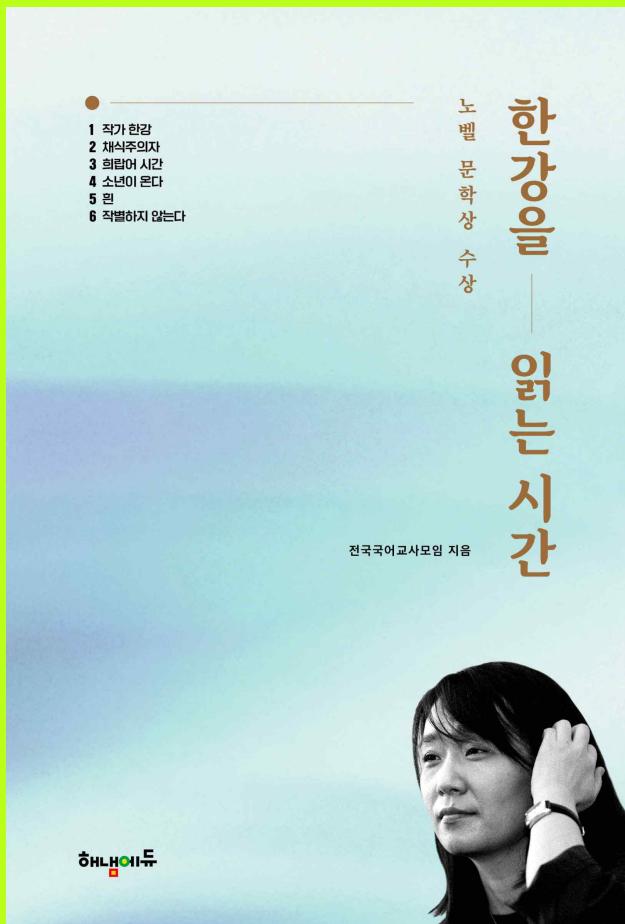
구분	모둠원 1	모둠원 2	모둠원 3	모둠원 4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				

## 3) 질문 만들기(16차시)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발표한다.
- ▷ 전체 학생끼리 질문의 답을 만들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한다.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설명한다.
- ▷ 모둠 대표는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다.
- ▷ 모둠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선정하고 이유를 생각해 본다.
- ▷ 반에서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선정한다.

구분	1 모둠	2 모둠	3 모둠	4 모둠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가장 좋은 질문, 선정 이유				

# 한강을 읽는 시간\_고등 문학 수업지도안



해냄에듀 홈페이지([www.hnedu.co.kr](http://www.hnedu.co.kr))에 오시면 고등 문학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I. 수업 개요

▷ **개설 취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으며 인문학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 성취 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돋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문학01-04]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12문학01-07]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

[12문학01-10]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한다.

[12문학01-12] 주체적인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지속적으로 문학을 즐기는 태도를 지닌다.

## ▷ 성취 기준 이해

-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인식적 기능을 기르고, 삶을 방향을 깨닫는 윤리적 기능을 기르며,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서적·미적 기능을 기른다.
-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여 문학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 공감적 감상은 자기 처지와 관점에 따라 인물의 행동이나 작품 속 현실에 공감하는 것이고, 비판적 감상은 그것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창의적 감상은 작품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상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치는 것이다.
- 문학 작품에 나타난 타인의 삶을 자기의 삶과 견주어 보거나, 작품에 나타나는 상황을 통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는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에 나타난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타자 이해를 통한 소통 능력을 기른다.
- 주체적인 문학 활동은 자기 처지, 관점, 취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여 작품의 의미나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주는 근거를 찾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여 성인기에도 문학을 즐기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차시	학습 목표	활동	읽을거리	비고
1차시	한강 작가 알기	작품 읽기: 질문지 활용	한강을 읽는 시간 1장	개인 활동
2~5차시	작품 전문을 읽고 질문 만들기	작품 읽기: 독서 일지, 질문지 활용	소년이 온다	개인 활동
6~8차시	작품 감상 공유하 기	작품 읽기: 질문지 활용	한강을 읽는 시간 4장	개인 활동 + 모둠 활동 + 전체 활동
9차시	더 나아가기	작품 배경 이해하기: 질 문지 활용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누리집	개인 활동
10~13 차시	작품 전문을 읽고 이해하기	작품 읽기: 독서 일지, 질문지 활용	작별하지 않는다	개인 활동
14~16 차시	작품 감상 공유하 기	작품 읽기: 질문지 활용	한강을 읽는 시간 6장	개인 활동 + 모둠 활동 + 전체 활동

▷ 차시 계획(1학기 16차시)

▷ 차시별 준비 도서와 준비물

차시	준비 도서
1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2~6차시	『소년이 온다』(한강■창비■2024)
7~9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10차시	태블릿PC 혹은 수업용 패드
11~14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12~14차시	『작별하지 않는다』(한강■문학동네■2024)
15~16차시	『한강을 읽는 시간』(전국국어교사모임■해냄에듀■2025)

## II. 수업 개요

### 1. 한강 작가 알기(1차시) : 『한강을 읽는 시간』 1장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

작품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중심 내용은 책에 그은 밑줄 부분만을 다시 읽고 그것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더한 후 간략하게 정리하면 된다.

꼭지	중심 내용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가가 받는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았다. 이로써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에서 수신자에서 발신자의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
한강의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벨 위원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한강의 소설을 읽어야 한다. 한강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깊은 감정과 통찰을 끌어낸다. 우리는 한강의 소설을 읽으며 소설 속 인물이 바라보는 빛과 진실의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한강의 소설은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은 인간성을 잃지 않으며 몸부림치는 인간에게 만 존재하는 것,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한강의 소설 전반에 나타난다.
회복은 상처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한다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것은 아픔을 덮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아픔이 연유하는지를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한강은 이 아픔을 묘사하여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독자가 품게 한다.
한강 작품의 모티프, 꿈	꿈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폭로한다. 한강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그의 꿈을 통하여 자기 내면을 드러낸다.
한강 작품 속의 이탈릭체(기울임글꼴)	한강은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 이탈릭체를 사용하였다. 소설에서 이탈릭체가 사용되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강의 소설에는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작가와 주인공은 같지 않지만, 등장인물에는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한강의 작품 곳곳에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작가의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다양한 경험이 작품이 들어 있으며 어떤 작품에는 그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2. 『소년이 온다』 전문 읽으며 질문 만들기(2~5차시)

1) 전문 읽기(2~4차시)

▷ 작품을 읽으며 각 장의 중심 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장	중심 인물	시기	서술자 (시점)	중심 내용	궁금한 점
1	동호	1980년 5월	전지적 작가	'너'(동호)는 정대와 함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정미를 찾으러 나선 시위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정대를 두고 몸을 피한다. 그리고는 친구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정대의 시신을 찾으러 도청 민원 봉사실에 갔다가 은숙, 선주, 진수와 함께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맡게 된다. 계엄군이 들어오기 전날 '너'는 함께 집에 가자고 찾아온 어머니를 안심시켜 돌려보낸다. 그리고 '너'는 정대를 두고 떠난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자책하며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예시) 왜 2인칭으로 서술하였을까? 왜 소년의 시선으로 서술하였을까? 왜 정체가 아닌 이탈릭 체로 서술하였을까?
2	정대	1980년 5월	1인칭 주인공	'나'(정대)는 동호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이 쏜 총에 목숨을 잃는다. '나'의 시신은 짐짝처럼 다른 시신들과 포개어진 채 시체 더미가 된다. '나'는 다른 혼들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끝내 교감할 방법을 찾지 못하며 '나'의 시신이 부패해 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나'와 누나를 죽인 그들을 생각한다. 급기야 군인들은 그 시체 더미에 불을 붙인다. 동호에게로 가려고 마음먹은 그 새벽, '나'는 조명탄과 총신의 불꽃 속에서 동호가 죽었음을 알아차린다.	흔이 말한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3	은숙	1985년	전지적 작가	출판사 직원으로 일하는 은숙은 수배 중인 번역자의 소재를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일곱 차례 뺨을 맞는다. 그녀는 그 일곱 개의 뺨을 잊기로 하면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과 도청에 남기로 결심하고 겁에 질려 있던 동호의 마지막 모습과 분수대의 물을 잡가 달라고 도청 민원실에 계속 전화를 하던 그녀 자신의 모습 등 5·18 때의 일들을 생각한다. 은숙은 그때 죽은 이들의 장례가 온전히 치러지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	
4	'나', 진수	1990년	1인칭 주인공	'나'(교대 복학생, 33세)는 1980년 5·18 당시 와 체포된 후에 겪은 일을 증언한다. 항쟁의 마지막 밤 소년 동호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진수의 모습,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들의 무장, 그때 빛났던 양심의 힘, 결코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던 시민군들, 형언할 수 없이 참혹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끝내 인간성을 잃지 않았던 어린 영재의 모습, 그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	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과거의 아픔은 사람들의 마음에 언제까지 남아있을까?

## 2) 질문 만들기(5차시)

- ▷ 작품을 읽으면서 메모한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 ▷ 스스로 답을 추측할 수 있는 것에는 답을 달아 보자.
- ▷ 스스로 답할 수 없는 것은 왜 답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자.

	궁금한 점	스스로 답하기	답하지 못한 이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 3. 『소년이 온다』 감상 공유하기(6~8차시)

### 1) 『한강을 읽는 시간』 4장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6차시)

- ▷ 작품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5차시에 만든 질문이 해결되는지 생각해 보자.

꼭지	중심 내용
일곱 개의 시선으로 보는 소년의 이야기	개별 이야기로 보이는 일곱 개의 이야기는 모두 동호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각 이야기는 시점과 초점 화자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변수를 보여 준다.
학살과 저항 -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비상계엄 아래에서 유일하게 저항한 전남대생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상황에서 5·18을 촉발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시민군을 만들게 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평화를 지켰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1988년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도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바로 설 것이다.
‘우리’와 ‘우리 군대’의 애국가와 태극기	1980년대는 국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시대였다. 그런 군인이 시민들을 죽였을 때 소년 동호는 정신적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왜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애국가를 불러 주고, 죽은 그들의 시신을 태극기로 감싸는지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5·18은 인간이 존엄하게 대우 받는 나라를 향한 시민의 열망이 만든 것이다.
소년 동호, 도청에 남다	소년 동호가 도청에 남은 것은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의 결과이다. 그 결단은 세상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는 어린 소년이기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고문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맞서지 않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 즉 내면의 양심에서 그 결단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왜 ‘소년’이며 왜 ‘온다’일까	소년 시절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절이므로 사회의 미래이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부당한 폭력으로 소년의 앞날이 사라져 버렸다. 결국 소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주’에 지금 이 순간 ‘소년은 오고 있다.’
시점의 변수와 의미 구성	작가는 시점을 변수하고,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 에피소드에 분산해서 배치함으로써 인물들을 더욱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작품을 읽는 내내 독자로 하여금 긴장을 유지하게 한다.
인물들의 개별성과 동질성	한강은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철저히 개인으로 독립하여 다루고 있다. 이념이나 처지나 신분 등에 따라 인물의 성격을 유형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개별화되어서 그 어떤 동질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를 모두는 다른 인물들의 사연을 증언하는 존재로 역할을 하면서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으로 큰 동질감을 획득하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 ‘꽃 편 쪽으로’와 이탈릭체	작가는 감정의 밀도가 차오르면 이탈릭체로 서술한다고 했다. 그러나 6장은 이탈릭체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구절에 감정의 밀도가 이미 차올라 있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어머니의 이야기 전체를 이탈릭체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모든 문장을 정자체로 썼다.

## 2) 모둠별 질문 만들기(7차시)

- ▷ 5차시에 만든 질문 중 6차시에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모둠원끼리 질문에 의견을 나누어 보자.
- ▷ 모둠에서 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우리 사회에 던져야 할 질문을 만들고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생각해 보자.

구분	모둠원 1	모둠원 2	모둠원 3	모둠원 4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				

## 3) 질문 만들기(8차시)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발표한다.
- ▷ 전체 학생끼리 질문의 답을 만들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한다.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설명한다.
- ▷ 모둠 대표는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다.
- ▷ 모둠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선정하고 이유를 생각해 본다.
- ▷ 반에서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선정한다.

구분	1 모둠	2 모둠	3 모둠	4 모둠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가장 좋은 질문, 선정 이유				

#### 4) 더 나아가기(9차시)

-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누리집을 방문한다.
- ▷ 제시된 꼭지를 방문하여 질문지에 기록한다.

꼭지	인상 깊은 내용
5·18민주화 운동이란?	
5·18세계기 록유산	
5·18 더 알아보기]	
5·18사적지	
아카이브 (KBS영상 아카이브 5월의 기록)	

4. 『작별하지 않는다』 전문 읽으며 질문 만들기(10~13차시)

1) 전문 읽기(10~12차시)

▷ 작품을 읽으며 중요 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부	장	중요 내용	궁금한 점
1부 새	1. 결정	'나'는 도시의 학살에 관한 책을 낸 후 악몽을 계속 꾸고 있다.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원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맞고 있는 것 같은 꿈이다. 그런데 이 학살이 이 도시에서만 일어난 것 같지 않다. 이 꿈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여야 한다.	(예시) 학살이 일어난 도시는 어디일까? '나'는 작가와 일치하는가?
	2. 실	'나'(경하)의 꿈을 들은 인선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두 개가 잘린다. 인선은 이 고통 속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하게 된다. 인선은 애써 노력하는 일이 실패한다 해도 의미만은 남을 거라고 믿는, 침착한 사람이다.	삼 주 동안 삼 분에 한 번씩 봉합수술한 자리를 찔리는 고통은 어떠할까?
	3. 폭설	새를 구해달라는 인선의 부탁으로 경하는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도 제주에 온다. 경하는 인선의 가출 경험과 그때 죽을 뻔했으며 인선의 어머니의 꿈 이야기, 죽은 자의 얼굴에는 눈이 놓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선이 말한 인선 어머니의 과거 경험 이야기 등을 회상한다.	왜 '나'에게는 인선의 부탁을 거절할 방법이 없었을까?
	4. 새	경하는 적막한 P읍에 도착하여, 눈이 올 때 인선이 인선 어머니의 어릴 때 경험을 말한 것, 인선이 가출했을 때 인선 어머니가 제주 집에서 인선이 콩죽을 먹으려 한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떠올린다. 경하는 밀도 높은 눈에서 인선의 베트남 촬영 영상을 떠올린다. 마침내 경하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세천리 인선의 집으로 간다.	"이상하다, 살아 있는 것과 달았던 감각은. 불에 데였던 것도,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살갗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감각은 어떤 감각일까?
	5. 남은 빛	기억에 의지하여 무릎까지 쌓인 눈과 어둠을 헤치고 인선의 집을 찾아가던 경하는 눈더미 속으로 미끄러진 후 겨우 인선의 목공방에 간다. 경하는 인선의 두 번째 다큐멘터리 주인공인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동상으로 발가락 4개를 잃은 할머니를 떠올린다. 그러나 물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을 떠올리고, 칠십 년 전 죽은 사람들이 맞은 눈, 인선 어머니가 맞은 눈, 인선이 맞은 눈, 베트남의 폭우, 자기 손의 눈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선이 말한 '삼면화'란 무엇일까?
	6. 나무	경하는 죽은 아마를 정성스럽게 땅에 묻는다. 그러곤 경하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선의 아버지에 관한 인선의 인터뷰가 담긴 인선의 다큐멘터리를 떠올린다. 경하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한다.	어떤 고통이 주어졌길래 인선의 아버지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1. 작별하지 않	기절한 듯 잠들었다가 깨어난 경하 앞에 어제 죽어 땅에 묻힌 아마가 있고, 목공방에서는 인선이 있다. 인선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한	인선은 실제일까, 혼일까? 왜 프로젝트 이름

## 2) 질문 만들기(13차시)

- ▷ 작품을 읽으면서 메모한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자.
- ▷ 스스로 답을 추측할 수 있는 것에는 답을 달아 보자.
- ▷ 스스로 답할 수 없는 것은 왜 답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자.

	궁금한 점	스스로 답하기	답하지 못한 이유
1부			
2부			
3부			

## 5. 『작별하지 않는다』 감상 공유하기(14~16차시)

- 1) 『한강을 읽는 시간』 6장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14차시)

- ▷ 작품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13차시에 만든 질문이 해결되는지 생각해 보자.

꼭지	중심 내용
소설 속 인물들을 따라가며 작품 읽기	작가의 분신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하’, 경하를 제주로 이끈 ‘인선’ 그리고 인선의 어머니인 ‘정심’, 이렇게 세 여성이 주된 인물로 등장 한다.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면 작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내용까지 한눈에 다가오게 된다.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도	제주 4·3 사건 때 중산간 마을은 95% 이상이 불에 타고 주민들은 집 단으로 학살되었으며, 해안 마을의 주민들도 백사장에서 몰살당한다. 생명을 앗아 가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던 끔찍한 시절이었다. 육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학살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기억을 위한 서사의 방식	<p>‘작별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에서 작가의 실천적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p> <p>경하가 제주로 간 이유는 작가가 제주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제주의 아픔은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p> <p>이 작품에서 ‘흔’은 큰 자리를 차지하며 실제와 상상을 넘나들며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이끈다.</p> <p>아카이빙 방식으로 증언하면서 제주어와 표준어로 병치되어 있다. 현재에 놓여 있는 인물의 생각이 끊임없이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사건들의 아귀가 맞춰진다.</p>
애도하는 방법	<p>검은 나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은 희생당한 이들을 애도하는 것이다. 검은 통나무를 심는 시기인 11월 중순은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이 선포되던 계절이다.</p> <p>오래도록 기다려 온 사람의 대답, 오래 침묵하고 갇혀 있었던 사람의 대답이 있는 목소리를 이끌어 세상에 말하게끔 하는 것이 인선이 행하는 애도의 방식이다.</p>
기억하는 방법	<p>제주 4·3의 아픈 역사와 희생을 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환지통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기억하여야 한다. 죽어 가고 잊힌 모든 것에 피를 나누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p> <p>피붙이를 향한 사랑은 역사와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사랑으로 이어진다. 개별적 사랑이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되살아난다. 추모에 그치지 않고, 찾아 나서 세상에 침묵 대신 기억을 건네는 일. 개인의 아픔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지극한 사랑’이다.</p> <p>콩죽을 쑤어주는 것, 동생에게 피를 나누어 주는 것, 앵무새를 정성스럽게 애도하는 것 모두 정성을 다하는 것이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p> <p>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이 작품은 문학이 증언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기록하여 알리는 일은 기억과 공유의 강력한 방법이다.</p>
가벼우나 가볍지 않은 소재	<p>눈은 현재와 과거를,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p> <p>한강 작가는 가장 가벼운 존재를 통해, 가볍지 않은 생명의 가치를 드러낸다.</p>
나은 이야기	제주는 역사적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섬이 되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유족에게 사과했으며, 제주 4·3 사건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

## 2) 모둠별 질문 만들기(15차시)

- ▷ 13차시에 만든 질문 중 14차시에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모둠원끼리 질문에 의견을 나누어 보자.
- ▷ 모둠에서 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 보자.
- ▷ 우리 사회에 던져야 할 질문을 만들고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생각해 보자.

구분	모둠원 1	모둠원 2	모둠원 3	모둠원 4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				

## 3) 질문 만들기(16차시)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발표한다.
- ▷ 전체 학생끼리 질문의 답을 만들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정리한다.
- ▷ 모둠 대표가 각 모둠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이 질문을 만든 의도를 설명한다.
- ▷ 모둠 대표는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다.
- ▷ 모둠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선정하고 이유를 생각해 본다.
- ▷ 반에서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선정한다.

구분	1 모둠	2 모둠	3 모둠	4 모둠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의견 나누기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가장 좋은 질문, 선정 이유				